

2-22-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베드로후서 3:12-14

말씀제목: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늘들이나 땅이나 사람들의 양심이나 새롭게 다시 창조하지 않으면 의가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그곳에 거하게 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들 양심 속에 들어 있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을 자신의 피로 씻어 제거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창 22:8)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딤후 3:16, 히 9:12-14)

하나님께서서는 의가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신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하늘들과 땅을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으로 재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늘들과 땅은 사탄이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로 인해 의로운 자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하늘들을 차지하고 있는 불의한 존재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엘
6:11-12)

사탄 마귀는 의롭게 된 자들이 영원히
차지하고 거하도록 창조된 하늘들을
자신을 섬기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이실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첫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과 죄를 짓게 한 후 지난
육천 년 동안 이 땅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오염되어 의가 거할 수 없는
지옥처럼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옛날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 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이 악할대로 악해져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AI)을
만들어놓고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구세주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의식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로봇 속에 들어가서
로봇과 함께 영생을 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땅도 불에 태워
녹아버리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으면 다는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살 새 예루살렘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납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계
21:1-7)

아멘! 할렐루야!